

코로나19보다 더 힘센 것



책 소개

혜수는 13일의 금요일에 생일을 맞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생일 파티도 못 하고, 친구들의 생일 축하 노래도 못 들었지만 절친 윤아와 함께 놀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윤아에게서는 소식이 없고, 학교에서는 뜻밖의 연락이 도착해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복잡해진 혜수는 결국 옛날 일까지 떠올리게 되고.....

“코로나! 제발 얼른 사라져 주라.”

혜수는 무사히 윤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선모

작가 소개

느릿느릿 걸으며 기웃기웃 다른 세상 엿보기를 좋아해요. 사라져 가는 것들, 새롭게 등장한 것들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 오랫동안 관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지요. 꽃밭 가꾸기, 동물 돌보기, 음식 만들기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동안 《꼬마 난민 도야》 《엄마는 게임 중독》 《굿바이, 미쓰비시》 등 많은 책을 썼어요. 해강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기도 포천 산골에서 '부영이도서관'과 안선모문학관 '책천지(冊泉池)'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현주

작가 소개

고적거리던 습관이 그림 그리는 일로 이어졌어요. 차곡차곡 쌓은 습관으로, 다양한 일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와비 날다》가 있고, 그린 책으로는 《엄마, 고마워요!》 《비밀》 《다른 건 안 먹어》 《인싸가 되고 싶어》 《무지막지 막무가내 폭탄 고양이》 《소원 코딱지를 드릴게요》 《조이버스에 탑승하시겠습니까?》 등이 있어요.

생각 그물

책을 읽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봅시다.

코로나19

● 코로나19가 뭐예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어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비드(COVID)-19라고 지었어요. 19년도에 발견된 코로나(CORONA) 바이러스(VIRUS) 질병(DISEASE)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줄여서 코로나19라고 부르지요.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 세균에 몰래 사는 생물이예요.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비루스(VIRUS)에서 생긴 말이지요. 바이러스는 아주 작아서 보통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해요.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겉에 솜은 뿔 모양이 왕관을 닮아서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의 코로나(CORONA)를 붙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지요.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비말(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로 전파되며, 감염되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거나 몸살이 온 것처럼 몸이 아파요. 간혹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지요. 현재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겼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과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 등 모두 여섯 가지예요.

● 팬데믹이 뭐예요?

각 나라마다 감염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감염이 유행처럼 번지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어요. 팬데믹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뜻해요. 보통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퍼지는 유행병과는 달리 두 개 대륙 이상의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나지요.

팬데믹 상황이 되자 여러 나라들이 락다운(Lockdown)을 발표했어요. 락다운은 이동제한령을 뜻해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상점들의 영업을 중단하는 락다운을 시행했지요. 우리나라는 락다운을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했어요. 또, 상점이나 가게의 영업시간도 전보다 훨씬 더 짧아졌어요.

● 코로나19를 이겨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계속 생겨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치료를 잘 받으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낮으니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된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심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면 보건소, 의료 기관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할 수 있지요.

병원, 생활 치료 센터에서 치료받던 초기와 다르게 요즘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해요. 60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인 집중 관리군은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에서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 일반 관리군은 의료 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을 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12세 미만 소아 환자도 일반 관리군에 속해요. 전화 상담·처방 시에는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 등 동네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재택 치료 대상자 모두 대면 진료 필요 시 사전 예약 후 외래 진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나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비누로 손 잘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기,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등을 잘 지키면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 놓았어요. ‘코로나 이후’의 우리 생활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빨리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해요.

(2022년 7월 기준, 질병관리청 설명을 참고함)

내용 되짚어 보기

● 가로세로 낱말 퍼즐

《코로나19보다 더 힘센 것》을 읽고, 다음 낱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②		
					④			
①							③	
			②					
③						⑤		
					⑤			
⑥		④						⑥
					⑦			

가로 문제

- ① 동물, 식물, 세균의 살아 있는 세포에 몰래 사는 생물이예요. ‘코로나 ○○○○ 감염증-19.’
- ② 병균이나 먼지 등을 막기 위해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예요. ‘KF94 ○○○.’
- ③ 전자 제품 간의 데이터를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예요. 혜수는 이모에게 생일 선물로 ‘○○○○ 이어폰’을 받았어요.
- ④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이예요. 혜수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 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 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책이예요. 혜수와 친구들은 ‘○○○’을(를) 가지러 강당에 갔어요.
- ⑥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의 내부를 엑스선을 이용해 찍는 사진이예요.
- ⑦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혜수네 반 친구들이 모두 ‘○○ ○○’을(를) 했어요.

세로 문제

- 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예요. 혜수네 가족은 조금 늦은 ‘○○○○○’ 파티를 열지요.
- ② 생일에 먹는 음식이예요. 혜수 엄마는 혜수 생일에 ‘○○○’을(를) 끓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 ③ 생강과 계핏가루를 넣어 만든 우리나라 전통 음료예요. 103호 할머니가 혜수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 ④ 신맛이 강한 노란색 과일이예요. 봄날카페 옆 골목에서 윤아가 고양이에게 지어 준 이름이지요.
- ⑤ 병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이예요. 엄마들은 ‘○○○’을(를) 찾는 탐정놀이를 했어요.
- ⑥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예요. 고혁진은 확진자가 누구인지 ‘알 ○○’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 독서 퀴즈

1. ‘○○○○○’은(는) 2019년에 발생한 감염병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15쪽)

○○○○○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바뀌었다. 그중에 하나가 생일 파티였다. ○○○○○ 이전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하는 게 유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 때문에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

2.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혜수의 성격을 써 봅시다.(19쪽)

윤아가 혜수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혜수야, 안녕! 보고 싶었어.”
혜수네 학년은 월, 수, 금요일 등교 수업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하루 못 본 건데 윤아는 혜수를 마치 오랫동안 못 본 듯 반가워했다. 혜수가 씩스러운 얼굴로 수줍게 웃었다.
‘내가 먼저 달려가 인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

3. 이동제한령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상점들의 영업을 중단하는 ‘○○○’을(를) 시행했어요. ‘○○○’은(는) 무엇인가요?(34쪽)

()

4. 혜수가 선생님에게 은비네 집을 모른다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53쪽)

()

5. 혜수는 12월 17일(화)부터 26일(목)까지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30일까지가 아니라 26일까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86쪽)

Blank area for answer to question 5.

6.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 수업, 줌 수업,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합니다. 이 중에서 혜수는 원격 수업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혜수가 원격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89쪽)

7. 현수가 혜수에게 눈사람을 만들어 가져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119~120쪽)

8. 혜수의 아빠는 베트남 출장을 간 뒤 오랫동안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23쪽)

9. 선생님이 윤아에게 다른 학생들보다 한 시간 늦게 와서 교과서를 가져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129쪽)

10. 혜수 엄마가 교문 안으로 들어온 윤아를 꺼안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135쪽)

생각 나누기

1.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엄마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혜수 엄마, 그렇다면 혹시 몇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준호 엄마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 어머니회 임원에게도 말을 안 해 주는 모양이군요. 혹시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죠?”
준호 엄마의 음성이 높아지자, 엄마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준호 엄마, 열 내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봐요. 누군가가 알아내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59쪽)

2. 혜수는 코로나19에 걸린 윤아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마음 아파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친구, 또는 걸렸던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손도 잘 씻고 거리 두기도 잘했어. 근데 왜 나야? 왜 나냐고!”
통화할 때마다 윤아는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건 네 탓이 아니야.”
혜수는 겨우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윤아에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113~114쪽)

3. 줌 수업 시간에 혜수는 고혁진과 ‘코로나19 확진자를 알 권리’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그렇다고 확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지낼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혁진이 혜수의 말에 반박했다.
“그 얘기는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로 생각하여 멀리하겠다는 뜻이네요. 한번 확진자는 영원한 확진자로 남아야 하나요?”(117쪽)

정답 확인

● 가로세로 낱말 퍼즐

			①크			②미		
			리		④방	역		
①바	이	러	스			국	③수	
			②마	스	크		정	
③블	루	투	스			⑤교	과	서
					⑤확			
⑥액	스	④레	이		진			⑥권
		문			⑦자	가	격	리

● 독서 퀴즈

1. 코로나19
2. 수줍음이 많다 / 윤아를 닮고 싶어 한다 / 윤아를 좋아한다 / 친구와 밝게 인사하고 싶어 한다 등
3. 락다운(Lockdown)
4.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 선생님과 친구들이 멀리할까 봐 / 엄마가 은비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 코로나19에 전염될까 봐 등
5. 혜수는 확진자인 윤아의 밀접 접촉자인데, 윤아를 만났던 날이 등교 수업이 있던 13일 금요일이라서 그 날부터 2주 동안을 계산한 기간이다.
6.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날마다 해서 지겨워서 / 친구들과 서로 얼굴도 볼 수 없고 내화도 나눌 수 없어서 / 등교 수업보다 재미가 없어서 등
7. 누나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기분을 풀어 주려고 / 누나가 방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할까 봐 / 자기는 밖에서 눈사람 만들고 노는데 누나는 못 나오니까 위로해 주려고 등
8.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 코로나19가 다 나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 평소와 다른 윤아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윤아가 확진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윤아가 곤란해질까 봐 등
9. 베트남 공장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려 공장 가동이 어려워 일을 해결해야 했다.
10. 코로나19로 고생한 윤아를 위로해 주려고 / 혜수 친구인 윤아가 자식처럼 느껴져서 위로해 주려고 / 마음고생 했을 윤아를 생각하니 안쓰러워서 / 윤아를 두고 탐정놀이를 한 게 미안해서 등

